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을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을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28호 현대불교 25

2011년 3월 23일(음 2월 19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마음 차원을 높여야 허공 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우리가 한마음으로서 도반들끼리 한자리에 또 모였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이렇게 자리도 불편하신데 모두 한도반이 되어서 같이 한자리를 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절을 짓게 됐대요 허허허.

여러분한테 저는 항상 마음으로 관하면서 말씀을 해 드립니다. 난 어떤 때는 보편은 우리가 갈 길이 바쁘는데, 시대에 따라서 세계가 가야 할 길은 바쁘는데, 이렇게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노니는 여러분을 볼 때에 어떤 때는 감사하면서도 슬그머니 눈물이 납니다. 그것도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나의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마 순간순간 들었기에 그런 모양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기를, 내가 말씀이라고 그러는 건 나를 두고 말씀이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태어나서 생활을 하시는데 항상 고정된 게 없다고 말씀드리죠. '공(空)이 색(色)이다, 색이 공이다.' 할 언어가 붙지 않게 돼 있는 세상 살림살이, 그대로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바람처럼 사라지는 이 살림살이, 보면 보는 대로 가 버리고 들으면 들은 대로 가 버리고, 만나면 만나는 대로 헤어져 버리고, 가고 오는 발자취도 떼어 놓는 대로 가 버리고, 먹으면 먹는 대로 가 버리고 남는 것이, 여러분이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놓고 가는 생활인데 어찌서 마음으로 그렇게 붙들고 헤매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밥을 못 먹고 옷을 못 입고 부자로 살지 못해서 그런지? 한철 나는 동안에 바람결처럼 그렇게 넘쳐나게 사시면 어떻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여여한데, 부처님을 믿는 다 안 믿는다 이걸 떠나서 그대로 넘쳐나는데, 그대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라 '가고 온다, 찾는다 믿는다' 이런 것도 없을 텐데, 너무나 당연한 일하면서도 너무나 타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얻는 법이 있다면, 얻는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는 소립니다. 우리 생활이 그렇게, 바람결같이 그렇게 가 버리고 찰나찰나 이렇게 바람처럼 날아가는데 조금이라도 얻을 법이 있느냐 이 소립니다. 얻을 법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가 유(有)의 법이며 바로 인과법이며,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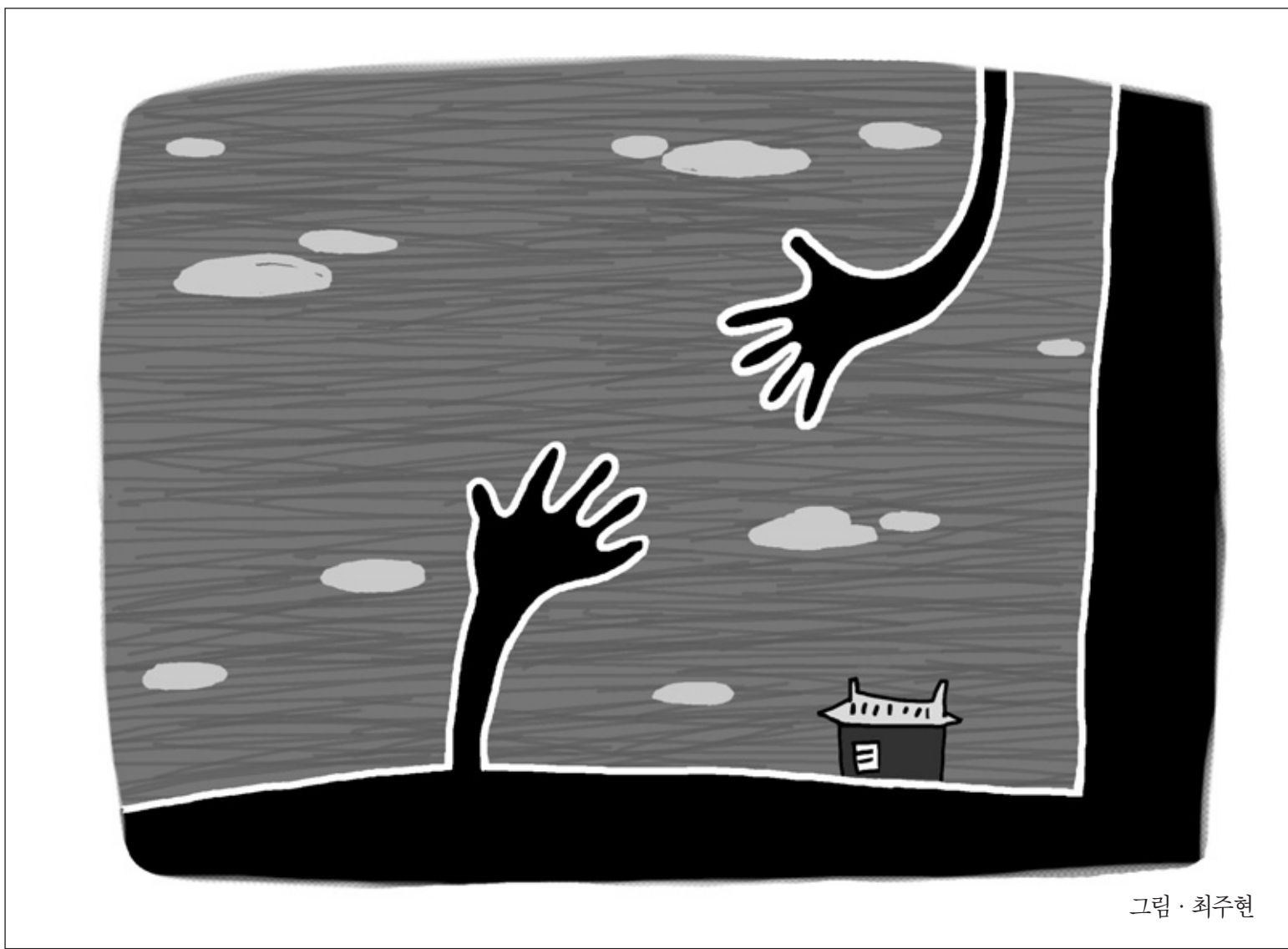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보를 받는 법이며 윤회하는 법이라 생사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몸통 안에서 벗어나고 이 공기주머니 안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자유인이 되려면 내 주인공의 성품을 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있다고 하는 말과 그 이론을 다 제쳐 놓고 얘깁니다. 내 성품을 보지 못한다면 바로 인과의 마음이며 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외도라고 칭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란, 업도 없고 인과도 없는 지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도 죽어야 하고 두 번째도 죽어야 하고 세 번째도 죽어야 한다 했습니다. 죽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내 현재의 마음이 과거의 성품한테 모든 걸, 주인공 성품한테

다 일임해라. '일임해라' 하는 것은 찰나찰나 날아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찰나찰나 나뉘면서 없어지는 걸 모르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그렇다고 알면서도 실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가 '일임해라, 맡겨라, 놔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생각이 몸통 안에서 그 많은 생명들의 의식이 차곡차곡 입력이 돼서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줄 알기 때문에, 속기 때문에, 바로 과거 부(父), 주인공의 성품에 모든 것을 맡겨라 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주인공의 성품이 그 몸속에 있는 의식을,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봤을 때에 비로소 과거의 나와, 즉 말하자

면 주인공의 성품을 부(父)라고 한다면, 현재에 사는 나의 마음을 자(子)라고 한답니다. 자와 부가 한데 합쳐졌을 때에 바로 내 정통의 마음은 탄생하는 겁니다. 그것을 견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견성을 했어도 했던 말 하지 말라.' 고 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어린애를 방금 낳은 거와 같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애를 낳은 것을 돈오(頓悟)라고 한다면, 어른이 될 때까지 길러지는 것은 점수(漸修)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길러져서 어른이 된다면 그것은 성불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도 무의 세계와 유의 세계를 합류시켜서 응무를, 작용함이 없이 작용할 줄 알아야만 또 그것은 구경경지에 이르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 죽어야 하는데, 즉 다 죽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거기까지 당도할 때는 어떤 이름이 붙여지느냐 하면 돈수(頓修)가 붙여집니다. 돈오·점수, 그것이 합류화해서 화했을 때는 바로 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가 제쳐 놓고 생활하는 데서 얻어라, 생활하는 데서 당신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모든 것이 벌어졌으니 그 벌어진 생활을 하되, 모든 것이 그렇게 바람결처럼 나뉘는 이런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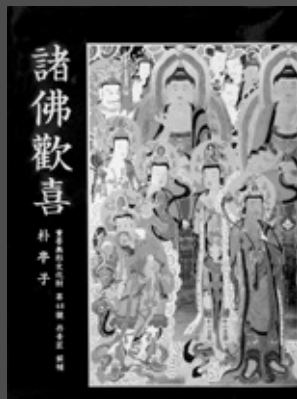
내가 항상 얘기해 드리지요. 한 가정에서 아버지 노릇을 하진만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라 아들도 되고 형도 되고, 동생도 되고 사위도 되고 그런다고요. 바람결같이 그렇게 나뉘면서 화해서 자꾸자꾸 나뉘는데 어떤 거를 움켜쥐려고 할 수 없고 어떤 거를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의정을 내기 이전에 먼저 믿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못났든 잘났든 내가 있으니까 바로 내 성품이 있는 거니까요.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폭이 물질계에서 정신계로 진출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정신계로 발전이 되고 물리가 터져서 차원이 높아져야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의 섭리도 이 세계와 더불어 같이 실천이 되게끔 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왜 하느냐고 모르는 분들은 그러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냐?' 이러지마는, 지금부터 그렇게 받아줄을 쥐고서 간다면, 그 받아줄이란 일체가 다 집결돼 있는 받아줄이기 때문에 그 받아줄 자체가 바로 주인공의 성품을 찾는 그 길일 것입니다. 거기에 통신이 된다면 온 우주까지 다 통신이 되니까요.

지금 컴퓨터가 나왔고 최상승의 컴퓨터가 나오고 아무리 지금 과학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 경지는 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사람의 종이지 사람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첨단으로 화했을 때에, 즉 말하자면은 철차

26면으로 계속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불교학의

B4양장/247쪽/100,000원/한국전통문화연구원

지난 1986년 전승공예대전에서 「금니(金泥) 부모은중경」 병풍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금어의 맥통을 이어 받았음을 입증한 박정자 선생의 사불수행 25년과 신심에서 우리나라의 불보살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 운주사

- 불교서적·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박정자 선생님의 사불교본 시리즈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국내 최대 크기(4절) 사불 안내서

초를 전부 새로 그려 사불을 하는 모든 분들이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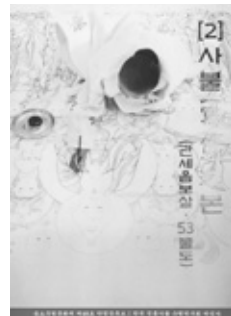
사불교본(1)

탱화정초, 대부모은중경, 팔상도, 비천도
4절지/249쪽/60,000원/한국전통문화연구원
영산회상도를 시작으로 부모은중경의 내용과 팔상도의 내용을 실었으며 비천도의 내용도 담고 있다.



사불교본(3) 만다라

4절지/89쪽/20,000원/한국전통문화연구원
만다라화는 연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상화하여 단청이나 불화에 문양을 넣어서 상서로운 길상의 의미로 사용한다. 약 40종의 만다라화를 담고 있다.



사불교본(2) 관세음보살, 53불도

4절지/269쪽/55,000원/한국전통문화연구원
수월관음도를 포함 관세음보살님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여러 모습으로 나타신 모습과 나무보광불에서 나무일체법상만광불까지 53불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불교본(4) 삼신불, 팔대보살

4절지/55쪽/15,000원/한국전통문화연구원
비로자나불을 포함한 삼신불과 관세음보살로 시작되는 팔대보살의 모습을 비롯해서 화엄성중과 시왕의 모습을 사불할 수 있게 하였다.

채찍을 맞으면서 굴러 봐야 둥글어 집니다

25면에서 계속

원까지 올랐을 때에 결국에는 철보가 가득해서 내 한생각이면 우주를 덮고도 두루 덮고도 남음이 있다 이런 소립니다.

그건 왜 그래야 하나? 우리가 이 물질적인, 50%의 상태로 사는 차원이란 앞으로 점점 우린 살 길이 희박한 겁니다. 왜 그래야? 우리 몸도 수명이 다하면 퇴색해지듯이, 지구나 어떠한 물체도 다 쇠약해지는 겁니다. 에너지도 쇠약해지고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우리 집이 무너지는데 집 속에 있는 우리 무너지지 않을까요? 우리 몸이 쓰러지는데 몸속에 있는 생명들은 쓰러지지 않겠느냐 이 소립니다. 여러분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조그마한 것들은 놔두고라도'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굴러야... 금이 그대로 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땅 속에서 수분과 지분과 공기력이 있어야, 그것도 금이라는 창조가 돼서 또는 화해서 바뀌지면서 자꾸자꾸... 그 금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금이 돼서 덩어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금의 값어치를 하지 못합니다. 금을 금대로 깎아 내고 골라 내고 해서 한테 뭉쳐서 빛을 내야 이게 강해지고 영원하고 빛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는 게 고라고 생각하시죠? 아니, 우리들뿐만 아닙니다. 미생물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여러분, 텔레비전으로 잘 보시죠? 그렇게 고의 길을 걷는다 하는데, 따지고 보면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그렇게 부딪치지 않고 구르지도 않고 부대까지 없고... 조약돌이 물이 스쳐 나가는 대로 자꾸자꾸 닳아서 반들반들하게 퐁퐁하게 요만하게 된 거를 많이 주워 봤습니다. 그렇듯이 사람도 그렇게 부대까지 없다면 진짜 사람 노릇을 못한다 이겁니다. 금도 금 값어치를 못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이 되고 능력이 있을 때에, 바로 금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시는 데에 항상 '아이고, 나는 죄가 얼마나 있기에 이렇게 되나? 팔자 운명이 얼마나 세기에 사람을 이렇게 만드나? 내 운명이, 팔자지.' 하고 팔자 한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대끼고 그렇게 아픈 가슴을 달래면서 그렇게 부대끼고 주먹을 쥐고 땅을 치고 울어야만 하는 인생살이를 외려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부대끼지 않고, 그렇게 채찍을 맞지 않고, 그렇게 구르

지 못한다면 둥글게 되질 못합니다. 절대! 그런데 뭐 조금만 외부에서 닦쳐오면은 온통 나 죽는다고, 속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벌써 나타나고 부증이 나고 온통 아단법석이 나오.

이 세상에 나오면은 한 번 죽기는 일반인데, 뭐이 그렇게 죽는 것이 원통하겠습니까만, 자식들을 낳아 놓고 이거 기르지 못하고 죽을까 봐 겁나는 거죠. 그런데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몸이 아닌 이상에, 모든 이 마음의 착을 탁 때어 버리면 외려 우뚝 서요. 아등바등하곤 그냥 온통 아단법석을 하나가 잘 우뚝 설 거를 외려 같이뭉기게끔 되는 거죠. 불붙어서, 자기 자성들은 다 제거할 것거든요. 자기 뿌리들은 제거할 것거든요. 자기를 다스리는 선장이 제거할 것 때문에, 내가 속으로 낳은 자식이 라고 해서 내가 마음으로 애지중지하고 붙들고

리는 큰 별이 그것을 생산을 합니다. 새로이 생산을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몸뚱이는 없어지고, 도로 지수화풍에서 와서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지마는 그 근본 종자만은 남듯이, 남아서 그 영원한 자기의 근본이 다시금 정자 난자를 발려서 다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차원이 사차원, 오차원, 육차원, 칠차원까지 이렇게 이르러야만, 이 몸은 가만 놔두고라도 그 마음 자체가 천차만별로 벌어져서, 그 블랙홀로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돼야 이 전 세계 컴퓨터의 모든 문제도 더 성장이 되게끔 할 수 있고 수명도 연장시킬 수 있고, 허공에 에너지 있는 거를 다 끌어 쓸 수 있는 차원이 돼야만 우리가 점차적으로 길게 살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진리의 삶이 길게 연

말입니다. 내 몸속에서 벗어나야, 공기주머니를 벗어나야 대기권을 벗어날 수 있고 대기권을 벗어나야 모든 각처에 어디든지 투입할 수도 있고, 또는 화해서 응신이 될 수도 있고 군사로 화해서 군사로 대비 대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거든지, 바다에서나 산이라든가 들에서라든가 우주에서라든가 세계의, 지구 모두 어디든 저 조그만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어디에도 높다 얇다 이런 것도 없고, 길다 짧다 이런 것도 없고, 크다 작다 이런 것도 없고, 멀다 가깝다 이런 것도 없고, 그대로 찰나찰나 그렇게 응무를 장하게 할 수 있다. 평등공법(平等空法)을 장하게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내가 될 수 있으면 이거를, 말을 '응무'라고 하면은 영어로다가 번역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좀 못 알아 들을까 봐 평등공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평등공법' 하면 누구

을 이길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대비 대책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기복으로 모두 카톨릭이나 기독교나 불교나 할 거 없이 모두가 기복으로 나가는데 우리라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네들을 다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생각이라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습니다. 신도가 오늘 같은 날 이사를 간다고 하거나 우리가 설법하는 날이 된다 이렇다면은, '아휴, 출지 않아야지!' 하하하. '출지 않아야지!' 또 비가 오더라도 그렇게, 사람이 그냥 못 견디게, 설법을 못 들고 마음애다가 지나지 못하게 비가 오게끔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마음이 아주 장평이요,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도 그렇게, 지금 한 가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사를 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온다.' 이럴 때, '우리 이사 갈 동안만 비가 오지 않아야 되겠다.' 지금은 이사 가는데 뭐, 천막을 탁 쳐서 상관이 없겠지마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이것 저것 다 싼고, 그냥 극대고 사람도 그 안에 타고 그냥 비 맞은 채 가죠. 덮을 것도 없이. 그거를 난 많이 봤어요. '저거 갈 동안까지 비는 맞지 말아야지. 가죽이나 가난해서 물건도 물건답지 않은데 비를 맞으면 더할 거 아니야!' 길에 가다가도 중얼중얼거렸습다.

이 마음이 부처란 말, 꼭 그런 증명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부처고 마음이 법신이에요. 마음을 가만히 두고 있으면 부처고 마음을 움직여버렸다 하면은 법신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도 또 다 같이, 만약에 그렇게 길을 지나가다가도 마음을 냈다 한다면, 그게 바로 찰나에 문수가 내 마음과 돌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그냥 법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서, 용신(龍神)도 법으로서 '갈 때까지 좀 놔둬라.' 이렇다면 비오게 안 하죠. 내 식구, 내 마음, 내 몸, 나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한마음으로서 차원을 높여서 동글리게 되면은 항상 동그러진다면, 그렇게 여러분도 그 응무를 자유자재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호에 계속)

그래도 고정된 게 하나 없이
바람처럼 사라지는 살림살이에
여러분이 쥐고 있을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렇게 그냥 놓고 가는 생활인데
어째서 그렇게 마음으로 붙들고 헤매이십니까!



늘어지면, 늘어진다면 외려 성장을 못하죠. '사랑을 하되 하지 말고.'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을 하되 진짜 자비로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놔 줘야 된다. 착을 두지 말라.

부모가 돌아가셔서 울고불고 그러지마는, 이 살아계실 때는 속을 있는 대로 썩이고서, 죽었는데 왜 울어요? 이래도 속썩이고 저래도 속썩이고, 간을 찢는 듯이 아프게 만들고 자랐으면서 죽었는데 왜 우느냐고요? 다 자기 때문에 우는 거라고요, 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물론 자기를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울어야 마땅하지마는, 진짜 울어야 하는 자비는 그렇게 우는 게 아닙니다. 가슴속에서 동시에 같이 울어야 하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 도리는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잘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왜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주와 우리의 집인 지구와 세계가 우리가 차원이 높아지는 대로 모두 그 수명을 연장하면서 말입니다. 또 이 말 하기 전에 우주는 모든 물질적인 그 모두를 해소시키고 그 근본만 남아서 블랙홀이

장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이 그만큼 되지 못했는데, 벌써 물질은 다 떨어지고 아니, 에너지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빈털터리가 되고 집이 무너지고 또 살 수 없다면, 우리 힘이 없으니까 어디서 어떻게 해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을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먹을 게 말입니다. 배가 고프네 먹을 게 선반 위에 높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키를 키워야 그걸 꺼내 먹죠. 그렇기 때문에 걸상이라도 갖다 놓고 올라서서 꺼낸단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원을 높여야, 걸상을 놓지 않고 높여야 우리가 꺼내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걸 물질이니까, 육안으로 보이는 거니까, 보이는 걸 놓고 올라서서 꺼내지만 이걸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보이지 않는 차원이 높아져야 우리가 꺼내 쓸 수가 있던 얘깁니다.

부처님의 그 도리가 그래서 깊고 광대하고 무변하다. 이 마음이라는 근본을 없애고서는 절대 세상이 없다. 세상을 확장시킬 수도 없고 방대한 능력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우리 마음이

든지 알 수 있으니까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벗어나야 전체 어디고 내 도량 아닌 데가 없고 내 자리 아닌 데가 없고, 내 거 아닌 게 없고 내 마음 아닌 게 없고, 내 몸 아닌 것도 없어요. 지금 사람은 자기 몸 생각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다도 흙도 돌도 어디고 다 쓸모가 있는 위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씩 조금씩 체험을 하면서 자꾸자꾸 차원을 올려라. 그래서 고가 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흥겨웁게 웃고 살 수 있다. 고가 아니다.

아무리 집을 쫓겨나게 됐다 할지라도, '흥! 나는 지금 심부름을 하는 입장이고 또 심부름을 하면서 자기가 넓게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인이 알아서 다 하니까, 자기는 걱정 없이 자기 주인이 나왔으려면 나왔고 들어왔으려면 들어왔을 테지.' 그러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길게 있다 죽어도 모두 자기 주인이 할 탓이니깐.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이 자기를 닦아나갈 수 있고 차원이 높아질 수 있고 자기 마음이 보배가 될 수 있고 자기 마음이 보배가 됴므로써 전체의 보배를 자기가 자유자재할 수 있다. 어떠한 극난한 문제도 악이 선

※ 위 법문은 1996년 3월 17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통 스님의 예불대참회문 DVD 특가 판매

원통스님
해인사 백련암으로 출가 성철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보성 스님을 전계사로 전계하였고, 1997년 정토원을 건립.

예불대참회문
대차비로 중생을 여여바보세 대희대사 배부시어 제도하시고 수승하신 지혜덕상 장엄하시니 저희들이 정성다해 예배합니다. 지심귀멸래 공강상사 귀의불 귀의법 귀의승

■ 원통스님 예불대참회문 1 SET : DVD 26개 52장

원순 스님의 몽산법어 DVD

■ 원순스님 몽산법어 : DVD 9장 100,000원

구 입 문의 : 불영TV 김봉환 010-8519-9279 (02)2236-7209
http://www.bytv.kr (법보시용 할인가로 판매합니다)

지리산 돼지감자로 만든 **“지리산 야생국우차”**

자연이 만든 인슐린 **돼지감자란?**
당뇨병, 류마티스, 골절, 타박상, 해열, 지열, 비만증, 다이어트, 변비에 효과가 있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눌린’은 칼로리가 없으며,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 장으로 내려가므로 혈당이나 혈중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환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 단 음식을 먹을 때 신경쓰시고 조절하셔야 하는 분
- 식이섬유 섭취 및 몸매관리를 원하실 때
-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몸이 뜨끈뜨끈 해지는 분
- 부모님 선물로 최고, 어린이 비만치료에 좋습니다.

돼지감자 판매 문의 남원 선원사
☎ 0502-337-0108 / 0502-338-0108 www.seonwonsa.kr
농협 301-0041-7701-11(지리산 청소년 예술제)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건선·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올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던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한 개선을 불치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남선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계, 방부제, 인공향유, 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과 치료.
-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루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제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다음카페 '아토피체험방' http://cafe.daum.net/yeoraewon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

여래원 원장 해파 합장 전화주시명 성심성익정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8875-5454

(주)현대에너지 2011년 최신행

농협용자 1년거치 7년분할상환
(농수산물건조기, 저온냉장·냉동)

고객의 행복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책임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 1월 ~ 20월까지

건조기(11월분) 건조기(22월분) 건조기(33월분)

본사공직직영점. 0502-228-1510 HP.011-673-2623